중국: 자본, 가문 자산, 일대일로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중국은 싱가포르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며, 싱가포르와 가장 여러 층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입니다. 싱가포르인 대부분은 푸젠과 광둥의 항구에서 건너온 이주민의 후손입니다. 이 책의 제A편과 제B편은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걸쳐 그들의 정크선, 송금업소, 은행을 추적했습니다. 현대의 관계는 그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은 도시국가와 대륙 강국 사이의 관계이고, 작은 개방경제와 세계 2위 경제대국 사이의 관계이며, 보통법 위에 세워진 금융중심지와 여전히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을 통제하는 국가 사이의 관계입니다. 10년 넘게 싱가포르는 중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었고, 중국은 싱가포르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 기업, 중국 가문의 자산, 중국 국가금융은 1990년 수교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규모로 싱가포르를 거쳐 갑니다.

이 장에서는 금융중심지의 관점에서 그 관계를 살펴봅니다. 먼저 역사적 유대와 함께, 1978년 덩샤오핑의 방문에서 오늘날의 동반자 관계에 이르는 외교의 여정을 다룹니다. 이어 싱가포르를 해외 확장의 거점으로 삼은 중국 기업들, 자산을 옮기고 흔히 자신도 이 섬으로 이주한 중국 가문들, 그리고 일대일로 구상과 인프라 금융을 살펴봅니다. 마지막 절에서는 중국 관련 사업이 은행, 신탁회사, 자문가에게 제기하는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다룬 뒤 제네바 및 홍콩과 비교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제네바에 관한 자매 도서는 제I편을 제네바와 아프리카의 관계에 할애합니다. 원자재 무역, 아프리카 엘리트의 재산, 불법 자산의 반환, 그리고 금융과 외교의 새로운 가교가 그 내용입니다. 이 비교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제네바의 지역적 관계는 여러 나라로 이루어진 한 대륙과의 관계입니다. 그 나라들의 자원은 스위스 무역회사를 거쳐 가고, 그 엘리트들은 오래전부터 스위스 은행에 돈을 맡겨 왔습니다. 싱가포르의 가장 중요한 지역적 관계는 대륙 규모의 단일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그 국가는 싱가포르의 최대 고객이자, 투자자와 고객의 원천이고, 정부 간 프로젝트의 파트너이며, 미국과의 경쟁을 통해 금융중심지가 활동하는 환경을 형성하는 지정학적 강국이기도 합니다.

핵심 요약

싱가포르와 중화인민공화국은 1981년 무역대표부를 교환했고, 1978년 11월 덩샤오핑의 싱가포르 방문 이후 10년이 넘게 지난 1990년 10월 3일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2013년부터 중국은 싱가포르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고, 싱가포르는 투자 흐름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입니다. 쑤저우(1994년), 톈진(2007년), 충칭(2015년)의 세 정부 간 프로젝트는 싱가포르의 계획 및 규제 경험을 중국에 전했고, 2013년부터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위안화 청산을 포함한 금융협력의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기술기업, 기업가, 가문들은 싱가포르를 역내 확장, 자산 구조화의 거점이자 거주지로 활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 기업이 고정자산 투자 약정액에서 미국 기업을 앞지른 2025년에 가속화되었습니다. 같은 흐름은 재산 형성 경위, 중국의 조세 및 외환관리 규정, 미국의 수출통제와 제재에 관한 컴플라이언스 문제를 제기하며, 2023년 자금세탁 사건은 이 문제를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